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서 강조
'제1706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나의 가족 나의 한센인' 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소록도서 한센인과 30년 생활...편견의 눈 거두길”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서 강조

“한센병, 전염성 약하며 유전병도 아냐...조기치료 가장 중요”

“소록도에서 30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센인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5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제1706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나의 가족 나의 한센인'이란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부장은 1995년부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센병의 역사와 한센인들의 고충에 대해 자세히 조

명했다.

오 부장은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법정 2군 감염병으로, 1873년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 발견됐다”며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접촉 시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감염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센병의 전염력이 강하지 않고, 유전병이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센병의 잠복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60년 정도”라며 “한센병은 결핵과 같은 법정 2군 감염병이며, 임파 뱃속에서 태반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병이기에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도 나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오랫동안 접촉 시 걸린다”며 “한센병은 말초신경에 피해를 주는 피부병이며, 조기 발견 시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 부장은 국내 한센병의 현황을 안내하며 30년간 한센인은 돌보며 안타까웠던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입원 한센인은 327명으로 평균 연령은 79.8세다”며 “한센병의 합병증으로 일상생

활 지원이 필요한 1, 2급 장애인은 278명으로 85.73%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록도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점은 우리 한센인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점이다”며 “BCG접종으로 국민의 99.9%가 한센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 전염이 되지 않는 데도, 식당과 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센인들을 진료하지 않았던 우리 의사들, 나아가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한센인들이 다 치료가 된 지 오래인 만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2월 전남도 임업인에 서승욱 백이산 편백 대표 선정

3대째 75ha 편백숲 가꾼 산림명문가...‘돈이 되는 산림’ 실천

전남도는 1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순천 외서면 백이산 일대에서 12년간 숲을 일군 서승욱(55·사진) 백이산편백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1963년 조부모 때부터 이어온 3대 산림가문으로, 순천 백이산 75ha 임야에서 편백·소나무·상수리 등을 직접 경영·관리하며 산림명문가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19년간 근무했던 산림조합을 떠나 본격적으로 사유림 경영에 나선 그는 조림부터 목재 생산까지 긴 시간을 보낸 하 위해 ‘숲의 이용 가치’에 주목했다. 매년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편백 수야베기를 통해 확보한 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며 산림의 경제성을 높였다. 현재 그는 자체 제재소를 운영하며 제재목, 편

백큐브, 생활 목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림→숲가꾸기→목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림경영체계를 정착시켜 연매출 2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 자영독립가로 평가받는다.

편백을 활용한 목재 생산뿐 아니라 잎·가지·톱밥 등 미이용 산림부산물까지 모두 채취해 자원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산림부산물을 줄여 산물 예방에 기여하고, 동시에 임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복합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 대표는 지난해 사유림 최초로 한국 산림인증제도(KFCC) 산림경영인증(FM)과 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을 동시에 획득했다. 앞서 202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명문가로 지정됐으며, 백



이산은 20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돼 지역 사유림 경영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산림경영인

협회 광주전남 회원, 전남 선도임업인협의회, (사) 숲속의전남 이사로 활동하며 대학과 산림조합에서 쌓은 지식과 실무를 예비 임업인에게 공유하고 있다. 지역 임업 발전과 후계 임업인 육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사유림 모델’을 확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승욱 대표는 “3대에 걸쳐 지켜온 백이산 숲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주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돈이 되는 숲, 찾고 싶은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백나무는 향이 좋고 내수성이 뛰어나 대표 상목 침엽수로, 건축재·교량재·가구재 등 용도가 넓다. 피톤치드 등 천연 향균물질이 풍부해 실내 환경개선과 탈취·살균 효과도 높아 수요가 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전문건설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문건설 광주시회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전문건설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협회 임·직원 30여명과 광주 재능기부센터 등 지역 복지센터 관계자 200여명이 함께 참여해 만든 김장김치 1000kg(200박스)를 준비했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

곳을 거쳐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박병철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문을 확산시키고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림부-aT, ‘하반기 K-푸드 아카데미’ 수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2025년 하반기 K-푸드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핵심 인재 89명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K-푸드 아카데미’는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운영하는 농식품 분야 심화 교육과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K-푸드 통합(8개월), 농식품 유통 전문가(4개월),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4개월), 농산물 수급 전문가(4개월) 등 4개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생들은 학계와 산·소비자 유통 현장 전문가, 해외 바이어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강사진으로부터 경영환경 변화 트렌드 △푸드테크·스마트팜 적용 사례 △온라인 도매시장 등 최신 유통 트렌드 △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실무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2025년 하반기 K-푸드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핵심 인재 89명을 배출했다.

심 교육을 받았다.

또 우수현장 견학과 해외 연수를 통해 산업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협업 모델을 모색하는 등 현장 맞춤형 학습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과 현업을 연계한 ‘실

전형 판로 개척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

다. 오아시스마켓 신진·가공식품 MD를 초청해 33개 기업과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해외 연수 과정과 연계해 현지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판

차세대 핵심 인재 89명 배출
실전형 판로 개척 프로그램

전남개발공사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캠페인

도 공사·출연기관과 헌혈증 기부로 생명나눔 실천

전남개발공사는 최근대한적십자사와 도 공사·출연기관 ESG협의체가 함께 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혈액 수급이 부족한 시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사랑의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백혈병·소아암 치료로 수혈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해마다 임직원을 비롯해 사육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ESG협의체 기관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헌혈 동참캠페인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혈액 부족으로 힘겨운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

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10월 19일)

쥐
48년생 매매 약속 다음으로 미루자
60년생 일을 기해해도 성공할 수 있다
72년생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자
84년생 큰 업제와의 거래가 성사된다
96년생 무의미한 일이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
토끼
51년생 현실에 순응하면서 저자세로 임하라
63년생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75년생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
87년생 뒷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게된다
99년생 학교에서 다투지 마라
말
54년생 친구도 반갑고 소개팅 받는 날
66년생 나간 것도 들어오고 새로운 것 얻는다
78년생 동업 권유를 거절하라
90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도전하는 시간

돼지
57년생 거래처 분쟁 불식 주의해
69년생 불꽃 사랑 오거나 송사 주의
81년생 오늘 거래 계획은 무산이다
93년생 새로운 자격계획 세우고 정진

소
49년생 구설수와 관재수 주의
61년생 지인에게 금전 피해 있다
73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
85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
97년생 오래 끌어오던 빚을 받을 수 있다
황소
52년생 내 것 주고 뺏 맞는다
64년생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포기하지 마라
76년생 오랜사랑 우정 이별수 있다
88년생 부르려던 대인 관계 필요한 날

양
55년생 열매였던 일에서 해방감 맛보는 날
67년생 직장 동료 간에 충돌 있으니 피하라
79년생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 모른척하라
91년생 새 이신 교체 기회 포착 잘할 때
개
58년생 조처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겠다
70년생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된다
82년생 귀인을 만나 생기를 찾을 운세다
94년생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강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자녀일에 다소 충돌이 예상된다
62년생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74년생 인연 있는 날이니 행운이 함께 하는 날
86년생 부동산 거래시 차근차근 하자
98년생 오랫동안 공부한 일이 이뤄진다
범
53년생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것
65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인정받는 날
77년생 잊혀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해방되라
89년생 지인 일에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라
원숭이
56년생 원거리 여행 계획 있으면 미루자
68년생 노력한 대가 따르는 날
80년생 늘어나는 지출로 빈 주머니 되기 쉽다
92년생 상사하고 화합할 때
돼지
59년생 제3자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겨난다
71년생 같은 말 여러 번 하니 배우자는 예민
83년생 가족끼리 화목하니 행복의 문 열리는 날
95년생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